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여자들에 대한 교훈

[딤후 2:9-10]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코스미 오스 κόσμος)[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바른 정신, 절제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성도는 단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절제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단정한 옷은 음란하거나 혹은 호화로운 복장과 대조된다.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뻔뻔스러움과 대조된다. ‘정절’이라는 원어(소프로쉬네 σωφροσύνη)는 ‘바른 정신과 절제’를 뜻한다. 그것은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과 대조된다. 여자의 인격적 아름다움은 단정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바른 정신과 절제심 있는 말과 행동에 있다. 잠언 11:22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또 여성도가 땅은 머리카락이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고 교훈한다. 여성도는 외적인 단장에 힘쓰지 말라는 교훈이다. 성도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또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 사실, 외적인 단장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과 몸을 지나치게 단장하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단장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

성도의 참된 단장은 선행의 단장이어야 한다. 이것은 내면적 단장이며 인격적 단장이다.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인격이 되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단장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헛되며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11-12절] 여자는 **일절**(일체 **순종함**으로(파세 휘포타게 **πάση ὑποταγή**)) 모든 순종으로 **조용히**(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조용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다(엡 6:24). 순종은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아름다운 덕목이다. 물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남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지만, 여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가져야 한다.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순종을 실천하는 방식을 보인다. ‘조용히’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순종은 조용히 행하는 것이다. 말이 많으면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기 쉽고 그것은 순종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순종은 자신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토론과 순종은 다르다. 토론하고 변론해야 할 자리나 위치가 있고 순종해야 할 자리나 위치가 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성도들은 조용히 배우며 범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은 목사의 직과 장로의 직에 해당한다. 사도 바울은 여성도들이 목사의 직과 장로의 직에서 제외됨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교훈, 즉 하나님의 명백하고 영속적인 뜻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했다(고전 14:34-38).

성인 여성도들을 위한 권찰들이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들은 목사와 당회의 감독 아래 있는 보조자들이므로 이 교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이런 목회 협력자들은 목사의 성경적 교훈과 당회의 바른 처리의 권위를 거슬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이며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신 권위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는 본문의 교훈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허용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일이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다.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와 변명을 든다 하더라도 신약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어기는 잘못된 일이다.

[13-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꺾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꺾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한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질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또 그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남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느[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조의 질서와 여자 창조의 목적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여자의 범죄 때문이다. 인류의 타락은 여자의 범죄 때문에 왔다. 여자가 뱀의 꺾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했고, 그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줌으로 남자도 범죄하게 되었다.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타락은 첫 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의 실수에서 비롯되었고, 여자는 그 일에 큰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고 또 자기 남편을 범죄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가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있다. 즉 여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바른 정신, 절제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 출산은 여자의 의무이며 특권이고 여자가 할 수 있는 매우 복된 일이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볼 때 여자의 지위의 회복을 가리킨다고 본다. 여자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또 범죄의 책임 때문

에 조용히 배우며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여자가 만일 바른 정신과 절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그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좋은 자녀들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경건한 어머니는 경건한 자녀들과 남자들을 길러낸다. 이 사실은 여자의 지위의 회복을 증거한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여자는 남자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도들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들로의 외모 단장보다 내면적 단장을 힘써야 한다. 그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절제로 또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둘째로, 여자의 목사직과 장로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여자가 성경말씀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 즉 목사직과 장로직을 행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때문애와 범죄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여자들은 오직 조용히 배우며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여자는 절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그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훌륭한 남자의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주일오후설교 종, 살인, 납치,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들

[출 21:1-2]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율례’라는 원어(미쉬파툼 מִשְׁפָּטִים)는 ‘판단들’이라는 말로 ‘재판법’을 가리킨다. 2-11절은 종에 관한 규례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6년 동안만 자신을 섬기게 해야 하였다. 사람은 너무 가난할 때 남의 종이 된다(레 25:39). 그러나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키고 제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해야 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이다. 또 종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해야 했다. 레위기 25:43, 46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고 명하였다.

[3-6절] 그가 단신(單身)으로 흐리 왔으면 단신으로 [흐리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흐리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

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엘로힘 מִיָּהוָה)「하나님」(ASV, NASB), 「재판장」(KJV, NIV)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가 되었다.

[7-8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贖身)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부모가 그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것은 가정이 극히 어려워져서 부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다음절에 비추어 볼 때 주인에게 첩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여종은 6년 후에도 남종같이 나오지 못했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첩으로 정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었으나, 그를 속인 것이 되었으므로 타국인에게 팔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자가 스스로 종이 된 경우는 남종같이 6년 후에는 자유를 얻었다. 신명기 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9-11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첩으로 얻은 여종에 대한 상당한 배려이었다. 또한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본적 필요를 배려하셨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의복, 음식, 동침하는 것)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었다.

[12-14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2-17절은 살인, 부모 구타,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 지적된 죄는 중죄(重罪)로서 그 형벌은 사형이었다. 12-17절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네 번 나오고,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한번 나온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손에 붙

이신 경우, 즉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남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민 35:22-23)나,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경우(신 19:5) 등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용도로 구별된 성, 곧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과 요단강 서쪽에 세 개의 성, 모두 여섯 개의 성이 있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달랐다. ‘짐짓 모살(謀殺)하였으면’이라는 원어는 ‘간교하게 죽이기 위해 뻔뻔스럽게 행하면’이라는 뜻으로 고의적 살인을 가리킨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다. 예컨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거나 돌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거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민 35:16-18),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신 19:11-13).

[15절]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것은 제5계명을 직접 어기는 죄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일이며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일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였다.

[16절] 사람을 후린(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후린다’는 원어는 ‘도적질하다’(출 20:15)는 단어이다.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적질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도적질이다.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하고 매매하는 일은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은 그 납치한 자를 팔았든지 그 손안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죽어야 하였다.

[17절] 그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이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결코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종에 관한 교훈은 오늘날에 직장생활의 윤리를 보인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복

해야 한다. 에베소서 65-7, 9,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상전들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위험하기를 그치라.” 골로새서 41,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 순종과 사랑의 교훈이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것은 사형을 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남의 인격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형 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아름다우신 왕의 땅

[사 33:17]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KJV, NASB) 왕을 보며 광활한 매우 먼(KJV) 땅을 목도하겠고 보겠고].

그 영광 중의[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은 하나님을 가리킨다(22절). 지혜와 능력, 공의와 선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시다. 또 광활한 매우 먼 땅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인다. 신약교회는 만국으로 확장되는 세계적 교회가 될 것이다. 온 세계의 각 나라, 각 민족에서 만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8-19절]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묵상하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칭량하던 저울로 달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 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두려워하던 것’이란 앗수르의 침공 같은 이방 나라들의 침공을 말할 것이다. 전에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침공으로 인해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강포한 백성’ ‘방언이 어려워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앗수르 군대를 가리킬 것이다.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

이 하나도 끊치지[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본문은 메시아 시대에 회복될 평화로운 예루살렘 성을 묘사했다고 본다. 하나님의 때에 그 성은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 즉 ‘평화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장막을 거두듯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막의 말뚝을 뽑지 않듯이, 장막을 친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평화의 성이 될 것이며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21절]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돌림 같을 것이라[거기에서 엄위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장소가 되시며 거기에는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것이 래(NASB)].

‘노질하는 배’와 ‘큰 배’는 앗수르의 전함(戰艦)들을 가리킬 것이다. 옛날의 전함들은 노질하는 큰 배이었다. 엄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다.

[22-24절] 대제이신 여호와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 . .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셨고 그 율법대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왕이시다. 또 그는 자기 백성을 온갖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원수들은 멸망할 것이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온갖 학대를 당했으나 이제 그들이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전함들의 돛대 줄은 풀리고 돛을 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고 끝까지 참아야 한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은 평온하고 안정된 성이 될 것이다. 17절, “너의 눈은 . . . 매우 먼 땅을 보겠고” 20절,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이 예언은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장차 영광의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롬 14:17).

셋째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다. 17절,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중에 계신 왕을 보며.” 21절, “엄위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장소가 되시리라.” 22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통치자 왕이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